



성 루가 복음 사가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뜻쟁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야 53,10-11

[화답송] 시편 33(32), 4-5.18-19.20과 22(◎ 22 참조)



(후렴) 주 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 대 로 자애를 베푸 소 - 서.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 2 독서] 히브 4,14-16

[복음환호송] 마르 10,45 참조

◎ 알렐루야

-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

[복음] 마르 10,35-45

[성가안내]

- 입당성가 [476] 위대하신 왕이여
- 봉헌성가 [332] 봉헌
- 성체성가 [170] 자애로운 예수
- 파견성가 [32] 언제나 주님과 함께

미 사 봉 헌

영미사	봉헌
이영화 / 지경임 마리아 김정수 베드로(영혼을 위해)	이미숙 안나 김민경 소화 데레사
생미사	봉헌
이할로 에드몬드/이유미 이사라 (영육의 건강을 위해) 심창섭 (사진전 성공을 위해) 조남록 미카엘 민사현 베드로/민사룡 가브리엘	손종애 안젤라 이성수 미카엘 이경자 율리안나 안영옥 분다 민덕미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10월17일	이영노 율리안나	정은철 프란치스코	김애희 테클라	김애희 테클라	안선정 마리안나	이기원 스테파노	이아림 수산나
10월24일	박기웅 사도요한	박기목 알버트	조규진 아녜스	조규진 아녜스	김영숙 카타리나	한창희 바오로	김진희 아델라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미사 시간 전에 묵주의 기도 1단 씩 바칩니다.**
 10월 묵주의 기도 성월을 맞아 주일 미사 전에 '영광의 신비' 1단씩 마칩니다. (10/17-3단, 10/24-4단, 10/31-5단)

● **오늘, 10월 17일, 공동체 설립 25주년 추진 위원회**

- 장 소 : 2층 사무실 옆방 - 시 간 : 미사 후

● **오늘, 10월 17일 울뜨레아**

- 장 소 : 2층 컨퍼런스 룸 - 시 간 : 미사 후

● **사목 협의회 10월 24일 월례회의 있습니다.**

- 장 소 : 교육관 2C - 시 간 : 미사 후
- 대 상 : 모든 사목위원들

● **2021년 제 25차 성령대회**

- 장 소 : 메이플우드 성당
- 일 시 : 10월29(금) 오전9시-오후5시
10월30(토) 오전9시-오후5시
- 참가티켓 : \$20
- 문 의 : 646-961-1639

● **주일 학교 교리 교사 찾습니다.**

9월부터 팬데믹 이전으로 주일학교 일정이 돌아가길 희망하며 미래 교회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신앙생활을 도우며 사랑의 예수님께로 인도 해 줄 봉사자들을 환영합니다.

문 의 : 김 가연 크리스티나
연락처 : 347-882-2244

● **청년 전례부원 모집**

빠른 시일안에 청년들모임이 재개되길 희망하며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시에 올려지는 청년미사에 봉사하실 전례부원들을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청년 전례부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선교 제자들

세례 받은 모든 이가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의 증거를 통하여 선교에 나서고 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목 주 기 도 성 월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니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루시아) | 김옥지(아가다) |
| 전마지(마가렛) | 김동희(헬레나) |
| 이종환(토마스 아퀴나스) | 이정주(소화데레사) |
| 김용기(요셉) | 정창동(폴리나) |
| 지군자(스테파니) | 고종호(마태오) |
| 홍봉운(바오로) | 진정은(마리아) |
|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 노의선(프란치스코) |
| 이병국 (요한) | 이진자(세실리아) |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마르 10,35-45)

오늘 마르코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출세와 섬김 이야기입니다. 수난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신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 번이나 수난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스스로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 담아 전했습니다. 제베대오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을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열 제자가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아 그들도 내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몰이해'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세례의 의미를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뜻으로 설명하시며 섬김과 영광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려 왔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제1독서는 이사야서의 '주님 종의 넷째 노래'입니다.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주님의 지혜로운 종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헤아릴 줄 알았고, 그 고난의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제2독서는 히브리서의 '위대한 대사제이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수난과 부활의 신비, 파스카 신비를 계시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대한 사제라고 부르며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려고 먼저 올라가신 하늘의 은총의 여좌로 나아가자고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찬의 식탁에서 성체와 성혈을 나누어 먹고 마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종처럼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추락없는 출세의 길, 섬김의 영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 한상만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특쓰는 영성

진상종교인 :

마음은 겹겹이 쌓인 총체물

심리치료하는 상담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심리처방을 해 주어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는 내마음을 다 알아!' 하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마음치유법에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일에 충고 아닌 충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진상이라고 하는데, 이들보다 더 골치 아픈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심리공부를 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몇가지 어설픈 지식으로 마음에 대해 다 아는 듯이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마치 시장에서 만병통치약을 파는 사람처럼 보여서입니다.

실제로 의존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돌팔이 처방을 따르다가 마음병을 키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간단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은 단순하지 않고 층층이, 겹겹이 쌓인 총체물이라서 그 구조와 생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의식은 바다와 같이 깊고 넓어서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자기가 평생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보려고 애썼는데도 다 보질 못했다고 고백했겠습니까.

몸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상입니다. 해부하면 사람의 몸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몸은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은 지금도 몸에 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 마음을 다 안다'고 호언하는 종교인들이 있는데, 다 사기꾼들입니다.

종교인들일수록 자신이 마음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무지로 인해 수많은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로 지쳐가는 교우분들께 끈대 유머 하나 소개합니다.

"여보세요. 신부님이시지요?"
"네."
"저 신부님 유튜브 팬이에요. 강의 너무 잘 하세요!"
"아 !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 하나 보낼게요 ~"
"아 ~ 뭐 그런걸..."
"(호호호) 근데 무료는 아니고요. 세일 기간이라 반 값만 받을게요! 아주 최고급 여성 화장품이에요."
"네? 저는 와이프가 없는데요."
"아 그레세요? 기러기 아빠신가 보다~"
"아이도 없는데요"
"어머? 별거중이세요?"
"아뇨~ 결혼 안 했어요."
"어머! 독신이세요? 저도 혼자 사는데..."
"아 ~ 그게 아니고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 ! 제가 아는 신부님은 사모님이 있던데요."
"아 ~ 거긴 성공회일거예요. 그 쪽에 연락해 보세요."
"어머 죄송해요."
"생각이 바뀌시면 전화 주세요."
난 착한 신부라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전화 해 줄거라고 했다. 유튜브 팬 하나 놓치지 싫어서....
가끔 이런 전화가 와서 마음을 심란하게 하곤 합니다.